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 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이 해외진출과 신규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DP World, P&O Trans Australia 지분 Qube Logistics에 매각-----	2
□ 시노트랜스, 중국 장강 물류네트워크 통합운영 시작-----	3
□ 아일랜드 더블린 항만 마스터플랜 발표-----	4
□ 페루 Loreto주 Yurimaguas항만 터미널 재개발업체 선정-----	5
□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6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이주호 책임연구원(02-2105-2890, jooho@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P World, P&O Trans Australia 지분 Qube Logistics에 매각

- DP World가 P&O Trans Australia(POTA)의 지분을 Qube Logistics(Qube)에 약 1억 600만 호주달러에 매각하였음
 - 이번 거래는 DP World의 지분과 각종 부채를 모두 포함하고 매각 대금은 4월 말까지 현금으로 지불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Qube는 POTA의 지분 94.5%를 보유하게 됨
 - POTA는 2006년에 P&O Ports의 일부로 DP World에 인수 되었으며, 이후 DP World는 P&O Automotive를 2007년에 Qube에 매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회사를 처분해왔음
 - POTA는 육상부문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육송 및 철송 연결, 통관 및 검수 서비스, 보관 및 배송, 내륙터미널 및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Qube는 POTA의 브랜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POTA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사업에서의 분리는 Patrick Corporation과 유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Qube의 POTA 투자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Chris Corrigan으로 Toll 그룹에 인수된 Patrick Corporation의 관리 이사였음
 - Patrick Corporation은 2007년 Toll그룹에 인수된 이후,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및 벌크항만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Asciano Limited와 호주의 최대 인터모달 철도 회사인 Pacific National로 분리되었으며, Toll Holdings는 국내 및 국제 포워딩, 물류, 해운, 군수물품 및 자동차 물류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DP World는 올해 3월에 DP World Australia Limited의 지분 75%를 Citi Infrastructure Investors에 약 14억 7,500만 달러에 매각한 바 있음

자료 : CI-online, 2011. 4. 19. / qubelogistics.com.au 보도자료, 2011. 4. 18.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시노트랜스, 중국 장강 물류네트워크 통합운영 시작

- 중국 최대 종합물류회사인 시노트랜스주식유한회사(中国外运股份有限公司)는 장강 물류 네트워크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4월 21일 중국시노트랜스장강유한회사 (中国外运长江有限公司, 이하 장강시노트랜스)를 난징에 설립함
 - 시노트랜스는 각 성과 분야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 운영에 애로점이 있었음
 - 장강시노트랜스는 중국 최대 경제권인 장수성의 물류를 담당하는 장수시노트랜스유한회사(江苏中外运有限公司)와 장강지역 바지운송을 주로 담당하는 시노트랜스장강유한회사(中外运长江有限公司)를 합병하여 설립됨
 - 장강시노트랜스는 자본금 5.5억위안, 10개 지사, 5개 사업부, 36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25척의 바지선, 10만m² 현대화 물류창고, 300대의 차량 등을 보유한 장강 최대의 종합물류회사로 거듭남
- 장강시노트랜스는 합병을 통해 장강지역의 물류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장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임
 - 성별 분야별로 별도로 운영되던 선박대리, 운송대리, 선박운영, 화물운송, 항만간 연결 등 장강 물류업무의 통합운영이 가능해져 장강지역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 또한 항만, 물류창고 등 물류인프라와 트럭, 선박 등 물류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컨테이너 운송업무를 강화할 계획임
- 장강시노트랜스 설립으로 인해 중국 최대 물류시장인 장강 지역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장강시노트랜스의 등장으로 장강물류시장은 기존 바지운송 중심의 물류체계 중심에서 내하수운과 연계된 복합물류구조 중심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
 - 장강 바지운송시장의 강자인 민성, 장항해운 등 물류기업들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영역 확대, 네트워크 강화, 투자확대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임
 - 따라서 장강 물류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물류기업은 이러한 물류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 <http://www.sinotrans-js.com> 2011.4.27

이주호 책임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



□ 아일랜드 더블린 항만 마스터플랜 발표

- 더블린항만기업(국영)은 더블린항 장기 개발계획을 발표
 - 이 계획에 따르면 30년내에 처리능력을 두배로 확대시켜 연간 6천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출 예정임
 - 고객, 사업체, 지역단체 등과의 단계별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 완결판은 연말에 발간될 계획임
 - 더블린 항만기업 CEO에 의하면 "더블린항은 지난 30년간 물동량이 4배가 증가했음에도 시설과 토지는 증가된 부분이 없었다"고 언급함
 - 현재 80여개 크루즈노선이 연결되어 있고 연간 180만명의 여행객이 더블린항을 이용 중임
- 더블린항 마스터플랜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항만부지 261ha의 토지활용
 - 하루 13,500대 이상 트럭의 출입가능한 도로 및 철도와 연결된 물류중심지로의 최적화
 - 더블린항의 다른 도시들과의 연결 또는 교차
 -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 항만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 항만시설 개발을 위한 신규토지 확보
 - 더블린항의 관광잠재력 극대화

<더블린 위치>



<더블린항 현재 >



자료: www.dublinport.ie 2011.4. / www.cargosystems.net 2011.4.26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 페루 Loreto주 Yurimaguas항만 터미널 재개발업체 선정

-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은 4월 26일 페루 아마존에 위치한 Loreto주의 Yurimaguas 항만 터미널 신설 및 재개발사업의 승자로 Portuario Yurimaguas 컨소시움을 선정
 - 이번 입찰의 낙찰자인 Yurimaguas 컨소시움은 (주)페루 건설 및 운영(Construccion y Administracion S.A del Peru)과 (주)에콰도르 히달고와 히달고(Hidalgo & Hidalgo de Ecuador)사로 구성
 - 이 프로젝트의 심사기준은 최소공사비용(PPO)제시와 최소 연간 관리 및 운영비용(PAMO)제시였으며 총 4개사가 예심을 거쳐서 Portuario Yurimaguas 컨소시움이 유일하게 기술 및 경제성계획을 승인받아 최종 단독입찰로 진행됨
 - 이번 입찰에서 Portuario Yurimagua 컨소시움이 제시한 금액은 PPO에 674만 달러와 PAMO에 271만달러라고 밝힘
- 터미널은 Yurimaguas지역의 Huallaga강 왼쪽으로 9,405Km의 Paita-Yurimaguas도로와 연결되어 지역적으로는 Lambayeque주와 Loreto주의 교역을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브라질과의 교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디자인, 건설, 관리, 운영 기간은 30년이며, 본 계약은 곧바로 서명될 것 이라고 교통통신부장관은 언급

<Yurimaguas 위치>



<Yurimaguas 연결도로망 >



자료: www.mundomaritimo.cl 2011.5.2 / www.apc.es 2011.05.02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조사 목적

- 국토해양부는 해운 · 물류 관련 유망사업 발굴 및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조사 기간

- 2011. 4.25. ~ 5.31.

□ 신청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 신청 대상 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 · 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 · 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 · 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김현성/전태영, 02-2110-6372, 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